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가 국내 시장에 공식 상륙했다. 사진제공 | 메르세데스-벤츠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QS' 공개

브랜드 첫 럭셔리 전기세단...서울모빌리티쇼서 선풍 인기차량 전모듈형 아키텍처·MBUX 하이퍼스크린 적용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25일 열린 '2021 서울모빌리티쇼(26일~12월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프레스테이에서 브랜드 최초의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The new EQS)'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더 뉴 EQS'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브랜드인 메르세데스-EQ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럭셔리 전기 세단이다.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모듈형 아키텍처와 차세대 인공지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 하이퍼스크린'을 최초 적용해 경쟁 럭셔리 전기차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새로운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완성된 더 뉴 EQS는 하나의 활과 같은 원-보우(one-bow) 라인과 A-필러를 전진시키고 C-필러를 뒤에 위치하도록 하는 설계인 캡-포워드(cab-forward) 패스트백 스타일을 적용해 양산차 중 가장 낮은 공기저항계수인 0.20Cd를 달성했다.

실내는 MBUX 하이퍼스크린을 비롯해 다양한 최첨단 디지털 요소를 탑재해 눈길을 끈다. MBUX 하이퍼스크린은 기존의 어떤 차량 실내 구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폭 141cm의 크기의 일체형 와이드 스크린 형태의 계기판 패널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MBUX 하이퍼스크린은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해 다양한 기능이 사용자에게 맞게 완벽하게 개인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로-레이어(Zero-layer)'라고 불리는 해당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세부 목록을 탐색하거나 음성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주요 기능들을 배치하고, 내비게이션, 전화, 엔터테인먼트 등 사용자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20가지 이상의 기능을 자동으로 추천한다. 또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에서 음성 명령으로 선루프와 창문 여닫기 등 차량 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는 더 뉴 EQS 450+ AMG 라인과 더 뉴 EQS 450+ AMG 라인 런칭 에디션을 우선적으로 선보였다. 두 모델은 107.8kWh 배터리와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478km 주행(환경부 기준)이 가능하다. 급속 충전기로 최대 200kW까지 충전을 지원해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약 30분이 소요된다. 최대 245kW의 출력을 발휘하며, 0~100km/h 가속에 걸리는 시간은 6.2초다. 가격은 각각 1억7700만원, 1억8100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2022 LG그룹 정기 임원인사

새로운 COO에 권봉석 부회장 지속가능 성장·고객가치 집중

신사업 발굴...경영전략부문 신설
LG전자 후임 CEO는 조주완 사장
구 회장 취임 후 역대 최대 승진

구광모 회장과 짝을 이뤄 LG그룹을 이끌어 갈 새 인물로 권봉석 LG전자 대표가 낙점됐다.

LG그룹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주)LG의 2022년도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구 회장의 새로운 '파트너'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주)LG 최고경영책임자(COO)에는 권봉석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부회장으로 승진해 선임됐다. 권 부회장은 구광모호 1기 체제를 함께 해 온 권영수 부회장의 뒤를 이어 구 회장과 손발을 맞추게 된다.

권영수 부회장은 지난 1일 LG그룹의 핵심으로 떠오른 LG에너지솔루션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주)LG는 내년 1월 7일 권봉석 부회장의 (주)LG 사내 이사 선임에 관한 임시 주주총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봉석 부회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산업공학학과와 핀란드 알토대 MBA를 졸업했다. 1987년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에 입사했으며, (주)LG 시너지팀장, LG전자 HE(홈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장, LG전자 CEO를 역임했다. 특히 LG전자 CEO로서 선택과 집중, 사업 체질 개선을 통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했다. 권 부회장은 향후 (주)LG COO로서 LG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LG는 또 COO 산하에 미래신규 사업 발굴과 투자 등을 담당할 경영전



(주)LG 최고경영책임자(COO)로 선임된 권봉석 부회장(왼쪽)과 LG전자 최고경영자(CEO) 조주완 사장. 사진제공 | LG

략부문과 지주회사 운영 전담 및 경영관리 체계 고도화 역할을 수행할 경영지원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다. 각 계열사가 고객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 경영전략팀장인 홍범식 사장이 경영전략부팀장을, 현 재정팀장(CFO)인 하범중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경영지원부문장 역할을 맡게 했다. 하 사장은 재경, 법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홍보 등 경영지원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LG전자는 후임 CEO로 최고전략 책임자(CSO) 조주완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선임했다. 조 사장은 1987년 금성사에 입사했다. 재직 34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시장을 경험하고 인사이드를 축적해 온 '글로벌 사업가'다.

한편 LG는 24일과 25일 계열사별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2018년 구 회장 취임 후 실시한 네 번의 임원인사 가운데 최대 규모인 132명의 신입 사무를 발탁했고 전체 승진 규모도 179명으로 최대 규모다. 아울러 일부 최고경영진의 변화를 꾀하면서도, 성과와 경륜을 고려해 대부분 주력 계열사 CEO를 유임토록 하는 편셋인사로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고려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2022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

김상현·안세진 대표 파격 영입 조직개편으로 시장변화에 대응

6개 사업군으로 계열사 유형화
전문성 갖춘 외부 인재 적극 투입
철저한 성과주의로 임원수 늘려

롯데가 25일 2022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파격적 인재 영입과 성과주의 원칙에 입각한 인사가 특징이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룹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 확보와 인재들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조직을 주문한 신동빈 롯데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존 비즈니스 유닛(BU·Business Unit) 체제를 대신해 헤드쿼터(HQ·HeadQuarter) 체제를 도입한다. 출자구조 및 업의 공통성 등을 고려해 6개 사업군(식품·유통·호텔·화학·건설·렌탈)으로 계열사를 유형화했다. 이중 주요 사업군인 식품, 유통, 호텔, 화학 사업군은 HQ 조직을 갖추고, 1인 총괄 대표 주도로 면밀한 경영관리를 추진한다.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를 적극 수혈했다. 김상현 전 DFI 리테일 그룹 대표이사과 안세진 전 롯데 대표이사를 유통과 호텔 사업군의 총괄대표로 각각 선임했다. 신임 유통군 총괄대표로 선임된 김상현 부회장은 P&G와 홈플러스 등을 거친 글로벌 유통 전문가다. 신임 호텔군 총괄 대표로 선임된 안세진 사장은 LG그룹과 LS그룹을 거친 신사업 전문가다. 기존 유통, 호텔 BU를 이끌었던 강태부 부회장과 이봉철 사장은 그룹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



외부 인재 수혈로 롯데에 합류한 김상현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왼쪽)과 안세진 호텔군 총괄대표 사장. 사진제공 | 롯데

철저한 성과주의 기조에 따라 승진 임원과 신입 임원 수를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늘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는 화학BU장 김교현 사장을 화학군 총괄대표와 함께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또 그룹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롯데지주 대표이사 이동우 사장으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식품군 총괄대표는 식품BU장 이영구 사장이 맡는다. 이영구 총괄대표는 롯데제과의 대표이사도 겸직한다. 롯데쇼핑의 신임 백화점 사업부 대표로는 신세계 출신의 정준호 롯데GFR 대표가 내정됐다. 롯데GFR 대표이사로는 롯데쇼핑 백화점 사업부 상품본부장 이재욱 상무가 보임됐다.

고정욱 롯데캐피탈 대표이사는 부사장으로 승진 후 롯데지주의 재무핵심직임을 맡는다. 추광식 롯데지주 재무핵심직장이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이동한다. 김용석 롯데이네오스 화학 대표이사는 부사장 승진 후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정승원 롯데케미칼 전략본부장이 전무 승진 후 롯데이네오스화학의 후임 대표이사로 보임됐다. 롯데컬처웍스 대표로는 최병환 CGV 전 대표를 부사장 직급으로 영입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현대차, 내년 서울서 레벨4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아이오닉5 자율주행차 투입 예정

현대자동차가 내년 상반기 서울 도심에서 레벨 4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

현대차는 25일 킨텍스(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열린 '2021 서울모빌리티쇼' 보도 발표회에서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과 국내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장웅준 현대차 자율주행사업부장 상무

는 "고객의 새로운 이동 경험 확장을 위해 내년 상반기 서울 도심에서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한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선보일 자율주행차 시범 서비스의 명칭은 '로보라이드(RoboRide)'다. 로보라이드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탑승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현대차의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다.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은 차량의 자동화



서울모빌리티쇼에 전시된 아이오닉5 자율주행차. 사진제공 | 현대차

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한 후 차량을 제어하고, 도로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등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상시에도 운

전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을 복잡한 도심에서 직접 검증하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한층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 운영한다.

내년 시범 서비스에 투입할 아이오닉 5 자율주행차는 특별히 제작한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닌 고객에게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한다는 아이오닉 5의 디자인 콘셉트를 반영했다.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토쿠문제

		9	2		8	4	
5			3		4		
4				5			3
	4		5		3		6
6		1				7	8
	9		8		1		5
				3			1
			1		9		6
	3	6		8		5	

■ 스토쿠정답

1			4	9				6
		5					1	
	6			5	1		7	
		9	6		7			8
2	7				6		1	
6		3		5	2			
	9		2	8			6	
		4				8		
8			7	3				9

■ 낱말문제

1	리	2		3		4		5
14		15		16		17		18
13								
12								
11								

■ 열쇠

1. 각 궁궐의 문을 지키던 무관 벼슬.
2. 종아리의 살이 볼록한 부분.
3. 물에 사는 포유류가 물속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쓰는 기관.
4.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5. 등

글넛적이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06. 이미 빌려주거나 빌린 돈. "오대출" 07. 기업의 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이외의 회사. 08.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09. 조용한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이 있음. 10. 동쪽·서쪽·남쪽·북쪽이라는 뜻. 11. 사람들이 야단스럽게 벌떡이는 상황. 12. 돼지나 닭 따위를 통째로 불에 굽는 일. 13. 자격을 가지고 남의 머리털을 깎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14. 동양화에서 매화·난초·국화·대나무를 그린 그림. 15.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16. 심하다 못해 나중에는. 17. 어린아이의 말로 엮히는 일을 이르는 말. 18. 방이나 칸살의 옆을 둘러막은 돌레의 벽. 19. 고

집이 세며 우둔하여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무뚝뚝한 사람. 20. 거침없이 넓고 큰 기개. "오연치" 21. 숨이 막혀 까무러침. "기호흔"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가~라칸을 이어놓으면 영화 제목이 됩니다.

14	15	16	17	18	19	20	21	22
14	15	16	17	18	19	20	21	22
14	15	16	17	18	19	20	21	22
14	15	16	17	18	19	20	21	22
14	15	16	17	18	19	20	21	22